

‘국내 실정에 맞는 독창적 물류체계 수립해야’

기업의 물류에 대한 인식제고 절실

물류교육, 폭넓은 시야를 갖는 좋은 기회

‘기업이윤의 제3의 원천’으로 대두되고 있는 물류분야가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활기를 띄고 있다.

주식회사 한진은 한진그룹 계열사로서 현재 국내의 각종 화물수송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 한진은 회사의 성격상 물류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체 내에도 ‘한진물류연구소’를 두고 이 분야에 대해 면밀히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주식회사 한진의 포장사업부는 가장 오래된 부서임을 자랑함과 동시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서이기도 하다. 이 분야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아직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포장사업부 복합운송팀에서 2년간 근무하며 나름대로의 전문영역을 구축하며 찾아서 공부하는 ‘물류연구인’ 이기영 대리를 만났다.

“한진에 입사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부에서 미국 용역작업을 3년간 담당하다가 포장사업부에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생소한 부분도 많고 해서 여러 사람을 쫓아 다니며 배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는 산업포장팀, 이삿짐포장팀, 복합운송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산업포장팀은 플랜트 수출포장, 수출용 기자재포장을 하고, 복합운송팀은 해상운송, 설비, 통관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했다는 그는 지금의 일이 전공과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공



▲낙천적인 사고의 소유자인 이기영 대리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본의 경우처럼 공동배송센터를 설립해 이용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여력을 설비투자의 영업망 확충에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 딱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전공한 것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냐며 오히려 반문했다.

“물류관리협의회에서 물류교육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운송업자 입장에서만 이해하고 있던 것을 총체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어 시야를 넓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단지 아쉬웠다면 도중에 해외출장이 있어 완벽하게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업에 임할 때 만큼은 누구보다도 충실했고 시험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라며 슬며시 웃는다.

덧붙여서 한진은 포장사업부, 영업기획부, 기획실에서 각각 한명씩 매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물류의 시발점이 포장이고, 포장지의 정형화, 모듈화 같은 것이 교육의 주내용이기 때문에 포장관계자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최근 기업들이 물류합리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전체적인 코스트를 다운시켜서 기업이윤을 추구해 나가기 위함이며 서비스 측면에서 정보화와 스피드시대인 만큼 화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대로 된 물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공동배송센터를 설립해 이용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나머지로 설비투자를 한다거나 영업망을 확장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포장할 수 있는 상품도 통일화가 되어 있지 않고, 팰리트도 KS규격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쓰는 업체들은 별로 없고 자신들의 제품에 크기를 맞추다 보니 효율도 많이 떨어져 전체적인 로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외국에 비해 사회간접자본도 미흡하고, 일부 확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제조업체, 생산업체에서 기업주들이 물류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삼성전자, 럭키 등 일부 대기업들이 물류에 관심을 가지고 자동창고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너무 미비하여 제가 중소기업에 나갈 일이 있으면 자동창고 설치에 관한 것이나 랙설치에 관해 아는 대로 조언을 해줍니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물류시설 공동화 시급

그는 우리나라가 일본물류체계를 그대로 답습

하려는 경향이 짙은데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리적 여건 등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차이점도 있으므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의 경우처럼 물류시설을 공동화하고 정부측에서도 각종 세제를 지원하고 체계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진은 기업특성상 영업체계를 통해 화주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회사의 이익도 고려하지는 것인 만큼 거래회사에 도움을 주려면 물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체내 물류연구소 교육을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교육도 늘려서 전 부서가 물류부서용, 전 사원이 물류담당자가 되도록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주로 술로 푼다는 그는 원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강한 편이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남들보다 덜 받는 편이란다. 그는 이 시대에서 찾아 보기 힘든 낙관주의자 임이 분명하다.

“지금은 연말이라 일이 많아 정신없지만 지금의 일이 재미있다”며 일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다.

이기영 대리. 그는 분명 우리 주위에 있는 보통 샐러리맨이다. 그러나 지향하고 있는 미래가 있기에 현재의 삶에 충실한 모범적인 인간형이다.

이선하 기자

일본의
물류체계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물류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